

주제 106
(2017) 10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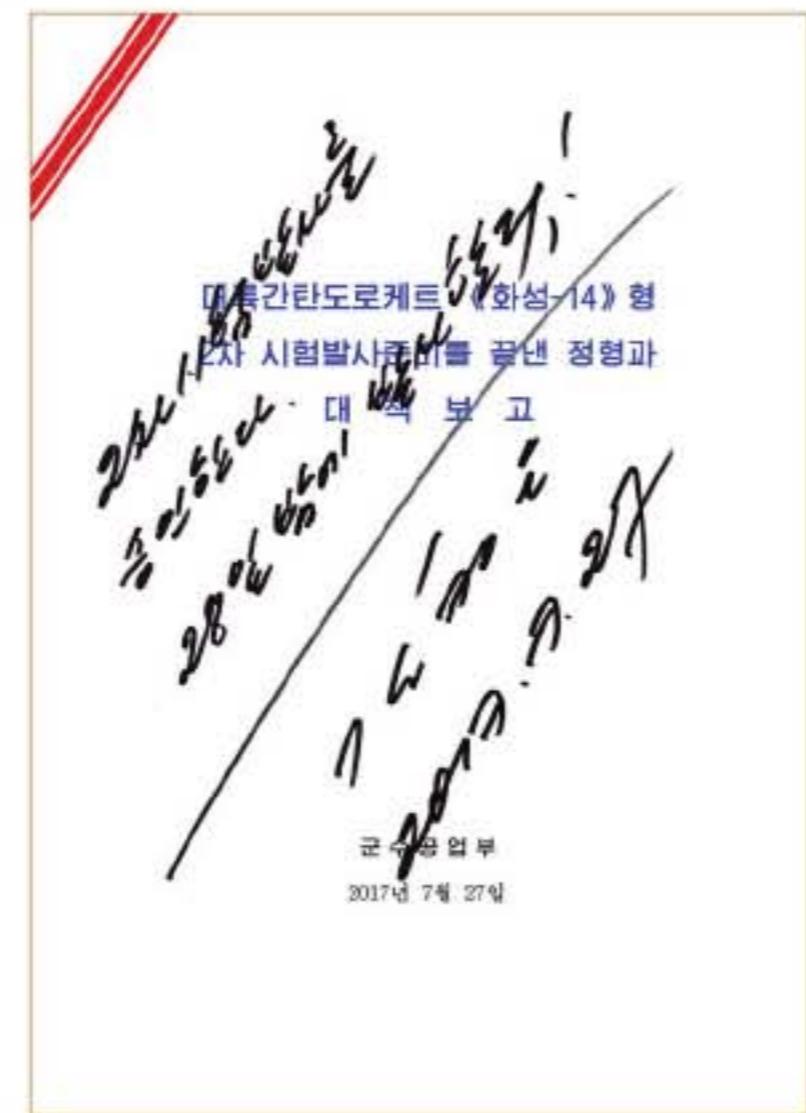
조

(735)



차례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의 일대 시위	1
공화국정부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6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시였다	10
△ 위대한 령도, 불멸의 업적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도대를 마련하신 절세의 애국자	11
- 경제사상강국을 일찌세우시여	12
- 경제강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하시여	14
- 불懈의 혁신강국으로	16
제5차 백두산위인창송국제축전 성대히 진행	18
△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결사전 앞으로!	
- 자력자감의 정신으로	22
- 억지마속도로 풍물창자	24
- 인기있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26
- 증진의 동음 높이 울린다	28
위인창송의 도서들을 출판	28
전민군민의 의지를 반영한 선전화들	29
백사장에 넘치는 웃음소리	30
민족놀이터에서의 하루	32
여행이들의 심야에 맞게	34
대동강에 비친 로인들의 모습	36
새로 발굴된 고려 15대왕 속종의 무덤	38
『파드』 배치반대, 즉각 철폐	40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06(2017)년 7월 27일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단행할데 대하여 친필명령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의 일대 시위

지난 7월 28일 밤 사회주의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채운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이 대지를 박차고 장쾌한 불줄기로 어둠의 장막을 밀어내며 우주만리로 단숨에 솟구쳐올랐다.

불과 20여일 전에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지구를 들었다놓은 조선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또다시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불쾌의 핵강국, 군사대국의 위용을 다시 한번 만방에 파시하였다.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담대한 배짱, 령활한 지략으로 세인의 예상을 뒤엎으며 언제나 련전련승의 기적과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준비기간 매일매일 그 정형을 보고받으시고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발사당일 밤에는 로케트시험발사장에 직접 나오시여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이번 시험발사는 대형중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의 최대사거리를 비롯한 무기체계의 전반적인 기술적특성

들을 최종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발사명령을 내리시자 영웅조선의 기상인양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이 단숨에 만리대공으로 날아올랐다.

조선의 서북부지대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은 최대정점고도 3 724. 9km까지 상승하며 거리 998km를 47분 12초간 비행하여 공해상의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었다.

이번 시험발사는 최대사거리를 모의하여 최대고각발사체제로 진행하였으며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대륙간탄도로케트 2차 시험발사를 통하여 지난번 1차 시험발사에서 확증되었던 발사대리탈특성, 계단분리특성, 구조체계특성 등이 재확증되었으며 능동구간에서 최대사거리보장을 위하여 늘어난 발동기들의 작업특성들과 개선된 유도 및 안정화체계의 정확성과 믿음성이 확증되었다.

또한 전투부분리 후 중간구간에서 중량전투부의 자세조종특성을 재확증하고 실지 최대사거리비행조건보다 더 가혹한 고각발사체제에서의 재돌입환경에서도 전투부의 유도 및 자세조종이 정확히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으며 수천 °C의 고온조건에서도 전투부의 구조적안정성이 유지되고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정상동작하였다는것을 확증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대성공을 이룩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로케트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특별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대륙간탄도로케트체계의 믿음성이 재확증되고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대륙간탄도로케트를 기습발사할수 있는 능력이 과시되었으며 미본토전역이 우리의 사정권안에 있다는것이 뚜렷이 립증되었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늘 우리가 굳이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최대사거리모의시험발사를 진행한것은 최근 분별을 잊고 객적은 나발을 불어대는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이라고 하시면서 이 정도면 미국의 정책립안자들이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미국이라는 침략국가도 무사할수 없으리라는것을 제대로 이해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국의 희떠운 전쟁나발이나 극단적인 제재 위협은 우리를 더욱 각성 분발시키고 핵무기보유명분만 더해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제야수들에 의하여 이 땅에서 참혹한 전란을 겪어 본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국가방위를 위한 강력한 전쟁억제력은 필수불가결의 전략적선택이며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려세울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전략자산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주체의 핵강국, 군사대국의 자주적 존엄과 위용을 다시 한번 만방에 과시한 로케트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 106(2017)년 7월



시고 역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사회주의 조선의 자주적 존엄과 불패의 위용을 다시금 힘있게 과시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온 나라는 끝없는 환희와 격정으로 설레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성공을 경축하는 연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평양의 인민극장에서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성공을 경축하는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이 진행되

였다.

수도 평양의 곳곳에서는 근로자들과 청년 학생들의 경축무도회가 진행되었다.

련이어 민족사적인 대승리를 안아온 궁지를 안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 신심드높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글 김태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성공을 경축하는 연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주체106(2017)년 7월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이 있었다.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국가과학원 동력기계연구소
실장 박사 석영범

로켓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그들은 높은 정신력과 과학기술력을 발휘하여 불과 20여 일 동안에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에서 렌이어 성공함으로써 주체적 로켓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속도와 막강한 잠재력을 만방에 과시하는 력사적 험거를 이룩하였다.

그들처럼 우리도 높은 민족자존의 정신과 애국의 열정을 분출시켜 제국주의 자들의 비렬한 과학기술봉쇄를 주체 과학기술의 눈부신 비약으로, 적들의 첨단기술독점을 최첨단돌파전으로 짓부시면서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앞장에서 추동해나가는 과학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겠다.



평양자동차기구공장 노동자
최만철

강국의 공민된 긍지 드높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홍광철

정말 통쾌하고 새 힘이 부쩍 부쩍 솟는다.

기나긴 세월 우리 인민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해온 가증스러운 미제에게 종국적 멸망을 선언하는듯 장쾌한 불줄기로 어둠의 장막을 밀어내며 만리대공으로 또다시 솟구쳐오르는 대륙간탄도로켓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 얼싸안으며 격정의 합성을 한껏 터치였다.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반미 대결 전의 확고한 승리적 담보를 마련한 존엄 높은 공화국의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사변들로 가득 찬 올해에 창조와 증산의 동음을 더 높이 울려가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평양시군중집회와 시위가 진행되었다.

공화국정부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를 결고들며 공화국에 대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유엔《제재결의》를 꾸며냈을뿐아니라 《전쟁불사》광증까지 일으켜대는 미국의 말악적인 책동에 단호한 보복으로 대처하려는 천만군민의 드림없는 의지와 확고한 결심을 염속히 천명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은 온 나라를 반미성전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다.

평양의 김일성광장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군중집회와 시위들이 진행되었다.

집회장들은 미국과 그에 맹종맹동하는 어종이며 중이들이 존엄높은 주권국가인 공화국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완전히 가로막으려고 조작해낸 유엔《제재결의》를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따라 만리마의 무쇠발굽으로 짓뭉개버리고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고야말 불타는 맹세로 끓어번지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싸움준비에 총력을 다하여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할것을 결의하는 인민무력성군인집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백두산총대로 백년숙적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책동과 무분별한 전쟁광증을 단호히 짓부시고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려는 인민군장병들의 멀적의 기상과 불패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인민보안성 군무자집회에서는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붉은 칼로미제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을 무자비하게 쳐갈겨버리고야말겠다는 인민보안원들과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의 혁명적의지가 힘있게 맥박쳤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교양마당에서 진행된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에서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고 아름다운 꿈과 희망이 풋펴나는 행복넘친 삶의 보금자리, 배움의 터전을 불바다에 잠그려고 미쳐날뛰는 미제에 대한 치솟는 증오를 안고 항일의 아동단원, 전화의 소년근위대원들처럼 원수격멸의 성전에 용약 떨쳐나설 300만 소년단원들의 맹세가 뜨겁게 굽이쳤다.

온 나라의 수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미제에 대한 천백배의 보복의지를 안고 조국결사수호의 성전에 총결기해나서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발표되어 3일 동안에만도 전국적으로 347만 5 000여명에 달하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이 인민 군대 입대와 복대를 탄원 하였으며 58만 1 500여명의 소년단원들이 미제를 반대하는 소년근위대 활동을 벌릴 것을 결의해나섰다.

온 나라에 풀어 넘친 미제에 대한 천만군민의 멸적의 보복의지는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 세우고야말 영웅조선의 기상을 힘 있게 파시하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싸움준비에 총력을 다하여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할 것을 결의하는 인민무력성 군인집회가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반미대결전에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울것을 맹세하는 청년전위들



항일의 아동단원, 전화의 소년근위대원들처럼 원쑤격멸의 성전에 떨쳐나설것을 맹세하는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가 진행되었다.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하는 청년학생들



괌도포위사격방안을 검토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 106(2017)년 8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8월 14일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시였다.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펼펼 휘날리고 있는 대련합부대 지휘부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장병들에게 따뜻이 손을 저어 답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에 전시된 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을 돌아보시며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걸어온 역사의 갈피마다에 어려있는 백두령 장들의 거룩한 령도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어 사령부지휘소에서 전략군이 준비하고 있는 괌도포위사격방안에 대한 전략군사령관의 결심보고를 청취하시였으며 오랜 시간 구체적으로 방안을 검토하시고 지휘성원들과 진지하게 협의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위력시위사격준비상태를 검열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화성포병들의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오늘 대련합부대에 와서 화성포병들의 전투준비태세와 사기충천한 모습을 직접 보니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게 된다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말씀하시였다.

미제의 군사적대결망동은 제손으로 제목에 올가미를 거는셈이 되고

말았다고, 비참한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미국놈들의 행태를 좀더 지켜볼것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국의 무모함이 선을 넘어 계획한 위력시위사격이 단행된다면 우리 화성포병들이 미국놈들의 숨통을 조이고 모자지에 비수를 들이대는 가장 통쾌한 역사적순간이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실전에 돌입할수 있게 항상 발사태세를 갖추고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군사강습소, 체육관을 돌아보시면서 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군사강습의 질적 수준을 부단히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구분대식당을 비롯한 대련합부대 지휘부안의 후방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군인회관에서 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의 공연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억척으로 담보하는 믿음직한 보검인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전체 전략군 장병들이 당과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싸움준비완성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글 최광호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위대한 령도, 불멸의 업적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절세의 애국자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인 주체 86(1997)년 10월 8일, 조선의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특기할 사변적인 날로 알려진 이날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따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조선로동당은 세기를 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끝없이 강화발전 될수 있었으며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는 오늘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탁월한 령도와 숭고한 애국현신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거이 들이켜보고있다.

정치사상강국을 일떠세우시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모심으로 하여 조선의 천만군민은 나라의 정치사상적위력이 비상히 강화되는 속에 공화국이 세계에서 으뜸가는 정치사상강국으로 위용펼치는 격동적인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90년대중엽부터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시면서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고 사회의 반석 같은 정치적지반을 이룩하며 존엄높은 자주정치를 실시하는데 최대의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주시대의 영원한 지도사상,

지도적지침으로 정립체계화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체인민을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혁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투쟁에 나서실 때부터 일심단결을 혁명의 제일무기로 내세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특히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의 수뇌부와 일심단결, 사회주의는 운명공동체라는것을 새롭게 밝혀주시고 혁명대오를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하는 혼연일체로 강화발전시킴으로써 사회의 정치적

지반을 박석같이 다지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존엄높은 자주정치를 실시하시여 정치사상강국으로서의 조선의 위용을 온세상에 펼치도록 하시였다.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활동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세계정치의 그 어떤 소용돌이속에서도 자주정치를 빛나게 실현하여 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과 국가가 자기의 지도사상을 가지고 자체의 결심에 따라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관철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사상과 리념이 있고 우리의 혁명방식이 있다는 확고한 주견과 신념을 지니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독자적으로 풀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외관계에서도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도록 하시였으며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거나 전드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인하지 않으시고 단호히 짓부셔버리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시대에 존엄높은 자주정치를 펼치시여 조선을 세계인민들속에서 가장 자주성이 강한 나라, 자주의 성새로 칭송받는 정치사상강국으로 일떠세우시는 영원불멸할 공적을 쌓으시였다.

글 최광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령도밑에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높은 단계에서 실현되었다.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2(1983)년 9월





2. 8비닐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1월

위대한 령도, 불멸의 업적

경제강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하시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리상이 눈앞의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오늘 조선 인민의 가슴속에 더욱 사무치게 새겨지는 것은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영상이다.

제국주의반동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몇 해째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나라의 토지가 규격포전으로 정리되었다.



새형의 CNC공작기계들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12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1월

였던 지난 세기 90년대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가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고 경제강국건설에로 천만군민을 불러일으키시였다.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 시킬데 대한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과 과학기술중시로선을 경제강국 건설의 전략적으로 선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경제 협편과 전반적 경제발전에서 매개 부문과 단위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경제발전을 위한 방략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앞장에 내세워 경제건설의 활로를 열고 군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모든 분야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는 선군정치방식으로 경제강국건설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시였다.

하여 1990년대의 엄혹했던 나날에 안변청년발전소를 완공한 군인 건설자들에 의해 혁명적군인정신이 창조되고 그 구현인 강계정신이 시대의 정신으로 나래치게 되었으며 그것을 사상정신적원동력으로 하

여 성장의 봉화, 라남의 봉화를 비롯한 혁명적대고조의 봉화가 세차게 타올랐다

그처럼 어려운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조선은 인공지구위성까지 쏴올려 세인을 놀래웠다.

새 세기에 들어와 보다 악랄해진 제국주의세력의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경제의 자립성, 주체성이 비상히 강화되어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비날론이 쏟아지고 새 세기 산업혁명과 더불어 전국도처에 시대적요구에 맞는 수많은 공장들이 일떠선 경이적인 사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이 나날은 온 나라의 공장과 기업소, 농장과 건설장들에로 잇닿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끊임없는 현지지도강행군의 나날이었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불타는 애국헌신으로 이어진 선군장정의 험난한 길이 있어 조선에서는 경제강국건설의 만년기를 마련되었으며 나라의 전반적인 국력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다.

글 최호





전방지휘소에 오르시여 부대의 임무수행정형을 료해하시는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
주체87(1998)년 11월

위대한領導, 불멸의 업적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불패의 핵강국, 무적의 군사대국으로 위용떨치며 조국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가는 사회주의조선의 막강한 국력에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공화국을 군사강국으로 강화 발전시켜오신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의 불면불휴의 로고가 아로 새겨져 있다.

국력에서 제일 국력은 군사력이다.

강한 군사력이 없이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은 물론 생존권마저도 지켜낼수 없다.

지난 세기 90년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은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고 핵무기까지 동원하면서 악랄하게 쟁동하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이 준엄한 시기에 총대중시, 군사



조선인민군은 그 어떤 침략자들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자리났다.

중시로선은 사회주의를 지키고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로선이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시고 강한 군사력에 의거하여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굳건히 다져나가시는 백승의 강국건설력사를 창조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면서 국방위주의 국가기구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분야를 선군의 요구에 맞게 개조정비하도록 하심으로써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성재를 튼튼히 보위 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 수호전의 최전방에 최고사령부를 두시고 철령과 오성산, 초도와 판문점을 비롯한 협난한 선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면서 인민군대를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 주체혁명위업 수행의 주력군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무적필승의 최정예 강군으로 더욱 강화하시였다.

그리고 인민군대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마다에서 전격의 돌파구를 열어 제끼며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강군의 기개와 위력을 펼쳐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고유한 품성이고 불패의 힘의 원천인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투쟁기풍에서의 완벽한 일치

가 실현된 군민대단결의 새로운 경지에 올려세우시였으며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하심으로써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튼튼히 다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적인 국방공업을 그 어떤 침단무기도 마음 먹은대로 만들어내는 백두산병기창으로 강화하시고 핵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선군시대 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을 새롭게 제시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수생산과 국방과학 발전에 필요한 물질기술적보장사업에서 전면을 가져오도록 하시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핵선제타격까지 운운하면서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제의 책동에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대처해나갈 원칙적립장을 천명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국방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과 일군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심으로써 공화국은 핵보유의 민족사적대업을 이룩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을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불패의 핵강국, 무적의 군사대국으로 위용펼치는 공화국의 막강한 국력과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다.

글 김정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성대히 진행



《21세기의 태양 김정은장군 만세!》 등의 프랑카드와 축전기발들을 들고 힘차게 행진해나가는 백두산태양맞이모임 참가자들

주체91(2002)년 2월 백두산에서 진행된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으로부터 시작된 위인칭송의 대회 합인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이 지난 8월 조선에서 다섯번째로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5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5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열린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에는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 국제민주단체의 대표단, 대표들, 각계 인사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축전에서는 백두산태양맞이모임,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를 비롯하여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혁명의 성 산 백두산정에서 진행된 백두산태양맞이모임에서는 백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을 만방에 펼치시며 선군의 보검으로 조선반도와 세계평화와 안전을 밀음직하게 수호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의 혁신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 진보적인류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담은 백두산선언이 천지를 진감하며 창공높이 메아리쳐갔으며 절세

의 위인들을 칭송하는 즉흥시들이 격조높이 구가되어 위인 흠토의 열기를 더해주었다.

참가자들은 《백두산대국에 영광을!》이라고 쓴 프랑카드에 서명한데 이어 《21세기의 태양 김정은장군 만세!》 등의 프랑카드와 축전기발을 들고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힘 있는 선률에 맞추어 행진해 나갔다.



혁명의 성 산 백두산정에서 백두산태양맞이모임이 진행되었다.



《백두산대국에 영광을!》이라고 쓴 프랑카드에 서명하는 백두산태양맞이모임 참가자들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방문하는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참가자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참가자들은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방문하였으며 삼지연대기념비를 참관하였다.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는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가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참가자들이 드리는 꽃바구니와 백두산천출위인들께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 및 지역준비위원회들, 국제민주단체들, 여러 나라의 정당, 단체, 기관들과 각계 인사들이 드리는 축기, 메달, 명예칭호, 상, 상장, 선물이 전달되었다.

대회에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업적을 길이 전하고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해가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을 적극 벌려나가려는 진보적인류의 의지가 뜨겁게 굽이쳤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참가자들이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축전 기간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와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 조선위원회의 공동명의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에서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 결의와 집회참가자들의 명의로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국가우주개발국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과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참가자들의 상봉모임이 진행되었다.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에 참가하고 있는 외국인사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 및 메달이 수여되었다.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참가자들을 위한 연회와 친선련환모임이 있었다.

사진 홍광남 글 김현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에서는 백두산천출위인들께 드리는 축기, 메달, 명예칭호, 상, 상장, 선물들이 전달되었다.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 진행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을 계기로 국제적인 도서 및 문예작품현상등모 당선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결사전 앞으로!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자력자강의 무쇠마치로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셔버릴 멀적의 의지를 안고 중량레루를

비롯한 인민경제발전에 필요한 각종 철강재를 더 많이 생산하여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에 이바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받아안고 강철생산을 늘여나가고 있는 이 성과들에는 기업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의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탐구가 많이 깃들어 있다.

나이도 어리고 현장경험도 적은 이들이지만 강철증산에 이바지 할 불같은 마음으로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다.

3대혁명소조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을 적극利用하여 소조원들의 실력을 부단히 높이고 집체적지혜로 선진기술을 창안도입하고 있다.

소조원들이 리철진, 최수미, 정광립은 남비정련로의 가스취입노즐을 마그네샤크링 카를 비롯하여 100% 나라에 풍부한 원료로 만들어 냄

으로써 국가에 많은 리득을 주었다.

소조에서는 석회석파쇄기 날개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냄으로써 합금강을 절약하면서도 선철생산을 정상화 할 수 있게 하였다.

강철직장 초고전력전기로 쇠물남비로의 미닫이식노즐의 생산방법도 개선하여 수천t의 쇠물을 더 생산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들은 70여건의 기술혁신을 생산에 도입하였다.

과학과 기술로 금속공업의 주체화에 이바지하려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 3대혁명소조원들의 지칠줄 모르는 창조의 열정과 탐구는 계속되고 있다.

사진 리명국 글 김충복



기업소에서는 원료와 연료를 생산에 앞세워 보장하면서 공정간 협력을 짜고들어 중량레루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강철생산의 주체화, 현대화를 위하여 선진기술들을 창안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전심하고 있는 3대혁명소조원들



만리마루도로 죽충친라

조선의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받아안고 생산적 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다.

풀지의 대상설비 생산기지인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로동계급은 자력자강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생산에서 기적 창조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제재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있다.

각종 타닝반들과 16m선반, 12m문형후라이스반 등 기대들마다에서는 타빈축과 날개판을 비롯한 발전설비들과 대상설비들에 대한 가공으로 쉬임없이 불꽃을 날리고 있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부속품들을 개발생산하고 4m타닝반을 비롯한 대형공작기계들의 CNC화를 실현하여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는 기업소로동계급은 최근에만도 수십대의 발전설비들과 각종 대상설비들을 생산하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로동계급이 힘있게 벌리고 있는 증산투쟁, 창조투쟁으로 하여 경제강국건설의 주요 전구들마다에서는 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사진 최원철 글 김현



기업소에서는 4m타닝반을 비롯한 대형공작기계들의 CNC화를 실현하여 발전설비들과 대상설비들의 정밀도를 높이고 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결사전 앞으로!

인기있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위치하고있는 선홍식료공장은 질좋은 식료가공 품생산으로 온 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다.

공장에서는 과학기술발전에 힘을 넣어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맛좋고 영양가높은 갖가지 식료품들을 개발하여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공장에는 식료품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와 기호가 끊임없이 변하는데 맞게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생산할수 있도록 과학적이면서도 예측가능한 통합생산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었으며 전반적인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었다.

생산공정들마다 제품의 위생안전성이 담보되게 꾸려지고 분석설비들과 위생통과시설들, 공기정화설비들이 그흔히 갖추어져 무균화, 무진화수준도 높다.

탄산단물생산공정, 튀기파자생산공정, 사탕생산공정을 비롯한 공장의 10개의 생산공정들이 ISO 22 000 국제품질인증 증서를 받았다.

공장에서는 현대화가 실현된데 맞게 종업원들에 대한 과학기술보급 사업에 힘을 넣고있을뿐아니라 새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해 그들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하여 국내최우수제품으로 평가를 받고있는 공장의 제품가지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파일빵, 커피사탕, 종합파자 등은 굴, 대추, 포도, 살구씨와 같이 건강에 좋은 천연원료들을 넣어 만든것으로서 구매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명상품, 명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려는 종업원들의 높은 열의로 하여 《선홍》상표를 단 식료품들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 김윤혁 글 김충복



위인칭송의 도서들을 출판

네 팔과 인도네시아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칭송한 도서들이 발행되었다.

도서 『선군인터넷나쇼날』 제3권은 방글라데슈 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 앤. 자한기르 칸이 집필한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을 앞부분에 정중히 모신 도서는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승리만을 아로새기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조선의 힘은 곧 선군사상의 힘이라는 것과 이 사상을 정립체계화 하시여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은 천재적인 사상리론가이시라는데 대하여 역사적 사실자료들에 기초하여 론증하고 있다.

파키스탄 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서기장 자베드 안싸리가 집필한 도서 『조선통일, 세계의 널원』의 앞부분에는 조국통일위업 실현에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진문헌과 역사적인 6.15북남 공동선언에 서명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진문헌, 주체 106(2017)년 신년사를 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이 정중히 모셔져 있다.

주체 71(1982)년 4월 어버이수령님의 접견을 받은데 대한 필자의 감회깊은 회고로 시작된 도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 3대현장을 지지하는 세계 각국의 연대성단체들, 개별적인 사람들이 벌린 다양한 활동들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조선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시라고 격찬하였다.

도서 『위대한 계승』은 영국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더모트 하드슨이 집필한 것으로서 앞부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진문헌을 정중히 모시였다.

도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하여 선군혁명으로 사회주의 조선을 불패의 반제보루로,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글 김선경

천만군민의 의지를 반영한 선전화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해낸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전면배격하며 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으로 천만군민을 고무추동하는 선전화들이 나왔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결사전 앞으로!

증산의 동을 높이 올린다

자력 자강의 위대한 동력을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제재압박소동을 여지없이 짓뭉개버릴 억척불변의 의지를 안고 멀쳐나선 평양양말공장에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 있다.

남자양말직장과 완성직장 등 공장의 모든 직장들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주인답게 하고 있는 기대공들의 애국열의로 하여 설비들이 만가동하고 갖가지 양말들이 쉬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녀자양말직장에서 새 기술창의고안으로 설비들의 능률을 높인것을 비롯하여 온 공장에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제품의 가지수가 늘어나고 품질이 더욱 개선되고 있음을뿐 아니라 양말생산계획이 넘쳐 수행되고 있다.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해낸 유엔 『제재결의』를 전면 배격하고 단호한 보복의지를 천명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받아안은 지난

8월 평양양말공장에서는 여덟 명의 종업원들이 2년 분 인민경제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년간인민경제계획 완수자는 수십 명이나 배출되었다.

평양양말공장에서 높이 울리는 생산정상화의 동음, 증산의 동음은 미제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셔 버리는 인민생활향상의 동음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동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 글 김현희



공장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개선하고 있다.





백사장에 넘치는 웃음소리

문천시의 경치 좋은 바다기슭에 강원도 12월 6일 소년단 야영소가 자리잡고 있다.

조선로동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정체에 빠들려 지난해 종합적인 청소년파의 생활 기지로 훌륭히 개건된 야영소의 근 17만m²의 부지에는 파도를 헤가르는 뜻배를 형상한 2개 호동의 야영각과 함께 식당, 회관, 해수욕장, 체육관, 운동장, 물놀이장, 로라스케트장을 비롯한 야영시설들이 그릇하게 갖추어져 있다.

지난 4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첫기 야영을 시작한 야영소는 여름철에 들어서면서 학생소년들의 야영열기로 더욱 끓어번지고 있다.

야영소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은 학생소년들의 나이와 심리에 맞게 야영활동을 더욱 흥미있고 다채롭게 조직하는 것과 함께 야영생들의 생일상도 차려주면서 그들의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주고 있다.

도안의 초급중학교들에서 모여온 야영생들은 이곳에서 한주일 동안 등산과 해양활동을 위주로 여러 가지 체육 및 문화예술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체육관과 운동장에서의 경기들도 신바람나지만 해수욕은 야영생들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체육활동이다.

어서 오라 부르는 듯 끝없이 출렁이는 넓고 푸른 바다에 뛰여들어 수영을 배우기도 하고 여러 유희오락들에 열중할 때면 이들은 시간의 흐름을 거의 잊다심이 한다.

전자도서열람실 그리고 종합지식보급실에서 해양지식과 동식물지식, 과학기술원리를 체득하기도 하면서 야영생들은 학교들

에서 배웠던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해나간다.

예술소품공연과 솜씨 전람회 등에서 자기들의 솜씨와 재능을 보여주기도 하고 제순으로 밥과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기도 하면서 야영의 나날을 보내는 과정에 학생소년들의 가슴마다에는 야영에 대한 즐거운 추억들이 새겨진다.

그와 함께 앞날의 훌륭한 주인공들로 준비해갈 결심도 키가고 있다.

사진 홍광남 글 최호



즐겁고 유쾌한 야영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야영생들





민속놀이터에서의 하루

풍치수려한 경암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사리원시 민속거리의 민속놀이터는 유구한 역사와 가진 조선인민의 민속풍습과 놀이들로 하여 흥성이 고있다.

옛 성안을 방불케 하는 이 민속놀이터에는 혼례식풍습을 보여주는 결혼식장도 있으며 그네도 타고 널뛰기와 활쏘기도 하는 놀이장들이 있다.

결혼식을 하는 날이면 신랑, 신부들은 이 놀이터를 찾는것이 관례로 되고 있다.

옛 풍습대로 민족옷들을 입고 신부는 가마도 타보고 신랑과 함께 결혼상도 받아보는 그들의 결혼식놀이는 이곳을 찾는 손님들의 눈길 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끌려들게 한다.

더우기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는 민속풍습에 부러움을 금치 못하던 외국관광객들은 승벽내기로 조선의 옛 민속풍습대로 결혼식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신랑, 신부처럼 조선옷까지 입고 가마도 타고 함께 결혼상에 앉아 기념사진도 찍고 있다.

민속놀이터에서 이채를 띠는것은 민족음료인 막걸리봉사이다.



민속놀이터는 수많은 손님들과 외국의 관광객들로 하여 련일 흥성거리고 있다.

민족옷을 차려입은 로인내외가 보기에도 향취가 짙게 어린 오지 단지마다에 찰찰 넘치는 막걸리를 표주박에 떠주는것을 받아마시는 손님들의 얼굴마다에는 기쁨이 한껏 넘쳐난다.

『어 좋다!』

『한바가지 더...』

탄성을 울리며 두번세번 청하는 사람들속에는 외국관광객들이 더 많다.

그들은 조선의 막걸리가 정말 좋다고 엄지손가락을 내흔들고 있다. 민족의 슬기와 아름다운 미풍양속에 한껏 취한 손님들은 흥겨운 춤판도 펼치고 있다.

경쾌한 조선민요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유구한 역사와 슬기로운 문화, 아름다운 민속풍습을 가진 높은 민족 적공지와 자부심이 넘쳐나고 있다.

사진 안철룡 글 김현희





어린이지능계발다매체편집률 《꽃봉오리》를 완성한 교양원들

전반적 12년제의 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된 올해에 조선에서는 새롭고 의의있는 교육편집물들이 많이 개발되어 널리 일반화되고 있다.

전국의 유치원들에서 학령전 교육에 리용되여 은을 내고 있는 지능계발다매체편집률 《꽃봉오리》는 창광유치원 교양원들이 만든 것이다.

이 다매체편집률은 무엇이나 알고싶어하고 표현하고싶어하는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게 찾기, 선택하기, 맞추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지능계발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되여 있다.



어린이지능계발을 위한 교육에 전심하고있는 교양원들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게

《들놀이가는 동무들을 찾아보세요》, 《열만큼 있는 파일을 바구니에 담아보세요》, 《동산가는 아이들은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요》와 같이 어린이들의 생활과 가까운것으로 문제들이 되여있어 장난이 심한 어린이들까지도 풀이에 여념이 없게 하는 편집률이다.

콤피터를 마주하고 이 다매체편집률에 오른 지능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은 어린이들의 관찰력과 기억력을 높여주고있을뿐아니라 우리말교육과 셈세기교육, 도덕교양과 정서교양으로 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주는 이 다매체편집률을 만들기 위해 창광유치원 교양원들은 사색과 탐구로 날파

달을 이어오면서 유치원교재에서 1 800개의 지능계발문제들을 만들 어냈다.

그에 기초하여 편집률제작에 달라붙은 그들은 1만 6 000여 점의 화상자료들을 가공편집하여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지능계발다매체편집률을 완성하였다.

창광유치원 교양원들이 조국의 미래를 키워가는 뿌리가 되여 만든 지능계발다매체편집률 《꽃봉오리》는 오늘 학령전 어린이 교육발전에 적극 이바지되고 있다.

사진 안철원 글 서길승



어린이들은 지능문제를 푸는 과정에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분석과 종합,
판단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나간다.



대동강에 비낀 로인들의 모습



수도 평양의 대동강 유보도에서 아침마다
이채롭게 안겨오는 것은 머리에 백발을 인 로인
들의 경쾌하고 률동적인 모습이다.

노래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의 선율
에 맞추어 률동체조를 하는가 하면 손자손녀의
손을 잡고 아침 달리기를 하는 로인들...

얼마전 우리는 대동강반에서 중구역 교구동
에 사는 박문식, 오원하부부와 김춘직, 윤병주

부부 그리고 박병태로인들을 만났다.

70살을 넘긴 그들이었지만 왕년의 혈기가
넘치고 있었다.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우리 나라에서야 난로자들에 대한 보호사업
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고 있으니
왜 60청춘을 노래하지 않겠소.』

박문식로인의 말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오늘 조선에서는 난로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아주고 있으며
로인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는 것이 전인민적인
감정으로, 하나의 사회적 미풍으로 되고 있다.

인민의 문화 휴식터로 홀륭히 꾸려진 대동강
반은 로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능수버들 휙늘어진 대동강반에서 낚시질도
하고 장기와 윷놀이를 승벽내기로 하는 로인
들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흥그럽게 하였다.

즐거움에 한껏 취한 로인들이 강반이 들썩하
게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며 춤판도 펼치였다.
봄시절은 멀리 흘러 우리 인생 가을인데
검은머리 희었어도 그 시절이 푸르르오
로동당의 은덕으로 황혼기도 청춘이니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나
...

『세월이야 가보라지』 노래를 부르며 흥에
거워 춤추는 로인들의 모습에는 인생의 로년기
에도 활력에 넘쳐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며 여생을 즐겁게 보내는 조선의 난로자
들의 궁지높은 삶이 비껴있다.

사진 최명진 글 김효심



새로 발굴된 고려 15대 왕 숙종의 무덤



무덤칸 입구



무덤칸 내부

조선의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918년-1392년)의 15대 왕 숙종의 무덤이 새로 발굴되었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시 선적리에 있는 이 유적은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유적조사발굴대에서 개성민족유산보호관리소와 개성고려박물관의 학술연구자들과 함께 발굴하였다.

발굴성원들은 최근 이곳에서 고려 15대 왕 숙종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유적을 조사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전면적으로 조사발굴하였다.

숙종왕의 무덤은 3개 구획으로 되여 있다.

1구획에서는 무덤봉분과 그 주위시설, 무덤칸의 돌축조시설들이 발굴되었다.

무덤의 방향은 동쪽으로 2° 정도 치우친 정남향이며 무덤칸은 반지하에 만들어진 외칸무덤으로서 크기는 남북길이 300cm, 동서너비 120cm, 높이 160cm이다.

무덤칸의 벽들은 모두 잘 다듬은 화강석돌들로 축조되어 있다.

무덤칸 남벽 문시설은 아래에 길이 125cm, 높이 45cm의 문턱돌을 놓고 그 위에 길이 120cm, 높이 95cm인 문돌을 올려놓았다.

뚜껑돌로는 크기가 대체로 동서길이가 160cm, 너비 50~60cm, 두께 35~50cm인 화강석돌 6개를 올려놓았으며 그 위에 큼직큼직한 돌덩이들을 놓아 무덤봉분의 죽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무덤칸 안 밑바닥에는 화강암판돌을 다듬어 놓은 판대가 놓여 있다.

판대의 크기는 길이 223cm, 너비 69cm, 두께 12cm 정도이다.

판대주변에는 비교적 두터운 바닥전을 깔아놓았던 것으로 보이나 발굴당시에는 몇개의 조각들이 남아 있었다.

발굴과정에 무덤칸에서는 금물을 올린 나무관갑질 조각들과 청동숟가락꼭지 등이 나왔으며 무덤칸뚜껑 돌우에 있는 돌들짬에서는 청자조각 한개, 곡장 부분에서는 봉황새무늬암기와 막새와 봉황새무늬수기와 막새, 롱대가리모양잡상조각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무덤의 2구획 동서량쪽에는 문관석인상이 세워져 있다.



동쪽문관상



서쪽문관상



동쪽무관상



서쪽무관상



청동숟가락꼭지

무덤의 3구획에서는 동서량쪽의 무관석인상과 비발침돌이 발견되었다.

무관상들은 손에 장검을 쥐고 있는 것으로 형상되었으며 그 높이는 210cm정도로서 문관상들보다 조금 작다.

비발침돌의 크기는 길이 67cm, 너비 54cm, 높이 43cm이며 비몸이 놓였던 흄의 길이는 27cm, 너비 19cm, 깊이 10cm이다.

고려 15대 왕 숙종은 11대 왕 문종의 셋째아들로서 본래 이름은 왕옹이고 1096년부터 1105년까지 왕위에 있었다.

숙종왕의 무덤이 새로 발굴됨으로써 조선민족의 첫 통일국가인 고려의 발전된 문화에 대하여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룡무늬암기와막새



봉황새무늬수기와막새



룡대가리모양잡상조각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강수정

《싸드》배치 반대, 즉시 철거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끊임없이 벌려놓고 있는 전쟁도발책동에 남조선 당국이 극구 편승해서 동북아시아지역의 정세를 각각 격화시킴으로써 민심의 커다란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고도요격미싸일체계인 《싸드》의 남조선배치가 미싸일방위체계의 수립으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략적우세를 차지하려는 미국의 패권 전략의 산물이라는 것은 세상에 공인된 사실이다.

미국이 《싸드》가 《북의 핵, 미싸일위협》에 대비한 《방어용》이라고 우기면서 그 배치를 합리화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이다.



《싸드》배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그렇지 않으면야 왜 미국이 남조선당국에 《싸드》배치의 완료기간 까지 정해놓고 그 실행을 강박하던 끝에 《싸드》배치를 늦추면 남조선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겠는가.

남조선의 군사전문가들이 《북의 미싸일들을 <싸드>로 막는다는 것은 황당한 노릇》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은 《미본토에 대한 타격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 일뿐》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하기 전까지만 해도 《싸드》배치문제에 대해 들키보다 실이 더 많다, 할 소리는 해야 한다면 남조선당국자들이 그 후에는 《싸드》배치합의를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떠벌이다가 나중에 와서는 《싸드》발사대의 추가배치까지 끝끝내 결정한것은 실로 가소로운 망동이 아닐수 없다.

《싸드》의 남조선배치과정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운명이야 어찌 되든 저들의 안전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국의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 본성과 함께 그에 무조건 순종할수밖에 없는 남조선 당국의 가련한 처지가 다시금 여실히 드러났다.

미국도 그렇거니와 미국이라면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민족의 머리우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는 남조선당국의 추태는 인민들의 저주와 분노가 더욱 치솟게 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에 굴종하는 당국의 반평화적인 행위를 규탄배격하는 목소리를 계속 세차게 높이고있다.

특히 《싸드》배치지와 가까운 경상북도 성주, 김천지역의 주민들은 당국이 《싸드》배치를 강행하는것은 평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에서도 당국의 주대없는 《싸드》배치 소동으로 말미암아 지역정세가 더욱 악화될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커가고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정기상



